

## 한국 교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장애인 편의시설 포함)에 관한 연구\*

박 혜 전\*\*

김 정 임\*\*\*

조 영 길\*\*\*\*

### 논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 교회내의 장애를 바라보는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의 정도를 밝히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어 온 한국 교회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 소재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연구문제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로서는 한국 교회내의 장애인식과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장애수용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질적 연구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회 내에서의 장애인식 등에 대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 조사대상자는 총 279명이었으며, 장애인 대상 설문과 면접의 질적 연구에는 26명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로 장애인식과 장애수용이 교회설립연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장애인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장애인의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회 내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로는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회 내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편의시설)으로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을 들고 있다. 장애인 면접조사 결과에서는 장애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하여 줄 것을 토로하고 있어 장애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성경적 장애인관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의 한국 교회 내 장애인 사역에 대한 과제 및 방향에 우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을 다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주제어:** 한국교회 내 장애인식, 장애수용,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 본 연구는 2011년도 고신대학교의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또한 2011년도 제 28회 기독교학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보완 수정하였음.

\*\* 제1저자, 교신저자, 고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

\*\*\* 공저자, 고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

\*\*\*\* 공저자, 고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

2012년 01월 27일 접수, 03월 12일 최종수정, 03월 21일 게재확정

## I. 서론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전파 된지 백년이 지났다. 지난 백년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있었고 교회들도 많은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성장하였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풍요로움을 느낄 때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의식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동료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복지국가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만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들이 사회 속에서 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나서서 찾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려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다. 많은 교회에서는 장애인 부서를 두고 있으며, 편의시설을 마련하였다. 여러 장애인 선교회를 통해 섬김의 열매도 많이 맺어 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김문수, 2009: 57).

장애인의 문제가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론도 되고 어느 정도 발전된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아직도 전반적으로는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일반 사회나 비장애인들의 무관심과 부정적 편견, 소극적 태도 등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 현실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 차별 현상 등은 여전하며 오히려 일반 사회보다 더 심한 편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정부자, 2003: 46). 이러한 것은 일반 교회 안에 장애인 성도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장애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3~5%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교회 예배당이나 건축물에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요 사회의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장애를 입지 않았을 뿐, 언제라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서는 장애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무관심과 편견으로 교회에서도 차별을 당연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가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 교회나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는 2009년 기준 약 350개 내외로 5만 교회를 헤아리는 한국 교회에서 1%에 미치지 못한다(이희철, 2009). 이것이 장애인 선교의 현실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회 내 장애인에 대한 교인의 인식 및 장애인 부서와 편의시설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 선교나 부분적인 치유사역은 일반교회가 아닌 장애인 선교회나, 장애인 교회, 선교단체를 통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을 제외한 일반교회에서는 장애인 선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를 100만명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 기독교인은 3만 내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추정해볼 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장애인의 생활환경 자체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사회문화의 접촉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이 복음의 소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교회가 장애인 문제나 선교에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장애인관은 편견과 동정으로 일관된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다(한남희, 2001: 34).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사상을 믿고 있는 한국교회도 사회와 비슷한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장애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거나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 동정하고 있으며 교회 건축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1998년 설립된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에 의하면 282개의 장애인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는 장애인부서를 두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문수, 2009: 57), 이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토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교회 내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편의시설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내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에 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이며, 이러한 한국 교회 내 장애인식 및 편의시설의 현황을 파악함

으로써 앞으로의 교회가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 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장애인의 존엄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문은 후속 연구에도 토대연구가 될 것이다.

## II. 교회내의 장애인식에 관한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 1. 성경 속의 장애인

장애인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사역에서 찾아본다면, 신약 성경의 4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귀신들린 사람, 소경, 병어리, 절뚝발이, 중풍병자, 앓은뱅이, 귀머거리, 간질병 환자, 손 마른 자, 유출병자 등을 고치는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김문수, 2009: 50~51). 그들은 병자 자신의 믿음으로써 즉 병자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치유하시는 사건이 등장한다. 두 번째는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즉 자원봉사자 혹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는 전도자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타난다. 네 사람의 믿음(마 9:2~8, 막 2:3~12, 눅 5:18~26). 청각 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막 7:31~37), 베데스다 시각 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막 8:22~26),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마 15:2~28, 막 9:14~29, 눅 9:38~42),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마 15:2~28, 막 7:25~30), 백부장의 믿음(마 8:5~13, 눅 7:1~11), 신하의 믿음(요 4:46-54), 회당장의 믿음(마 9:18~19, 23~26, 막 5:22~24, 35~43, 눅 8:41~42, 49~56)을 통해서 치유에 의한 구원을 주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병자를 붙잡히 여기시는 마음에 의한 치유의 사건(눅 7:11~15, 13:10~17, 요 9:1~7, 11:17~44)이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무관심, 소외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성경해석이나 복음해석이 교회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인의 심층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성기환, 1990: 67; 김문수, 2009: 51).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그러나 상당수의 장애인은 자신의 입술, 이성과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물리적 구조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여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 예수께서 인간을 차별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경시 되었던 여성, 아동, 장애인들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다. 교회도 초기에는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인간의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구성하였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복음으로 인한 감격을 상실하면서 일반 사회와 더불어 여성, 아동, 장애인들을 소외시켰다. 더구나 차츰 장애인들의 행동이나 문제는 사단과 연결되어 장애인을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는 움직임이 교회 내에 자리 잡았다. 성경에서는 모든 장애를 사단과 연결 짓지는 않았으나 극단화된 신학은 장애인을 박해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그 대상이 되었다.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을 대할 때 그들을 귀신들린 것처럼 취급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지금도 수없이 설교 속에서 ‘믿기만 하면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멍어리가 말하며, 앓은뱅이가 걷는다’는 식의로 사람들의 신앙심을 부추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이용되고 있지 않으며 교인들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름하에 동정과 자선의 대상으로서의 도구 역할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박재홍, 1998: 50; 김문수, 2009: 52).

그러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행 14:8~10).” 이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 사도바울은 루스드라를 찾았고 선천성 장애를 치유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본문 8절은 그 사람을 가리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똑 같은 의미의 표현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 의사인 누가는 이 사람의 장애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9절에서는 바로 그 선

천성 하반신 장애인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삶은 절망과 동의어이나,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중 유독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게 주목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눈여겨보았고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장애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과 선천성 마비 장애인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가 장애를 지닌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장애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풍성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 자선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한 인격체로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2. 교회 내의 장애인식

장애인들에 대한 교인들의 의식이 장애인들의 호칭과 권리자로서의 장애인관, 성경적 장애인관에 대해서 원칙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을 평등한 관계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잠재적으로는 이를 거부하는 관습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일관성 없는 장애인관이 아직도 남아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속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데는 많은 교인들이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매우 낮아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자신이나 그 가족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교회와 교인의 태도에 관해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려 하지만, 이 말을 할 때 우리들의 심리적 반응은 벌써 눈이 움직이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불안하고,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과 같이 실체가 다른 이중의 기준은 우리의 교회가 실제로는 장애인을 철저히 거부

하면서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임으로서 오히려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그릇된 장애인 의식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김문수, 2009).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서는 장애인 사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바른 인식을 가지는 일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 밖의 복지와 봉사의 대상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교회 내 장애인식과 관련된 기사로 “교회여, 지적장애인에게 세례 베풀라”의 내용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 사례1: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조셉(가명·20세·자폐장애)의 부모는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교회에 요청했으나, 스스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사례2: 주일 장애인 예배에 5년 동안이나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샌드라(가명·26세·지적장애)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례 요청을 거절당했다.
- 사례3: 준섭(가명·27세·지적장애)이는 당회가 베푸는 세례문답에 참여했으나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

최근 뉴욕 퀸즈한인교회에서 ‘교회들이여, 지적장애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를 주제로 제10차 장애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한 조이장애선교회 대표이자 장애신학의 저자인 김홍덕 박사는 “교회 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부정적”이라며 “잘못된 신학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등지게 된다. 교회 내 장애인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운증후군이라는 염색체 이상으로 생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늦둥이 딸(조이)을 둔 김 박사는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학적으로 대변하고자 지난해 지적 장애인을 위한 성례(聖禮)에 대한 신학적 지침서 ‘장애신학’ 서적을 출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도와줄 신학적 준거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성경에서 ‘장애’라는 주제가 폭넓게 수용되었듯,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가 더 이상 ‘비정상’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 박사는 지난 14일 본지에 보내

은 서면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회에 대해 지적하면서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신앙고백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례를 베풀지 않고 있다”며 “과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적 능력을 이유로 세례를 거부해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유아세례를 베푸는 교회마저 지적장애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이나”며 “과연 세례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구원증명서인가?”,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 3. 교회에서의 장애수용

교회는 장애인들을 대할 때 그 상황들을 잘 파악하여 진실하게 대하여야 한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정적인 장애인관이 아직도 팽배하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복음 앞에 평등해야 하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선 시설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교회의 시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비장애인들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로 오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 화장실, 주차장, 모든 시설물들이 건강한 사람을 우선으로 되어 있다. 관공서를 찾아가면, 많은 의식의 변화와 법적 강제로,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교회 내로 들어가도 장애인을 위한 의자 하나 배려해 놓고 있지 않다.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도구인 성경이나 찬송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들이 교회를 찾아 왔을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점자 성경과 점자 찬송가가 준비돼 있는 것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남동우, 1994).

장애인들이 교회 건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회의 출입구,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전용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교회 건물에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새로 건축하는 교회는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편의시설은 예산문제가 많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편의시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생활용품에서 유

니버설(보편적 설계)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회평등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권선진, 2007: 337).

교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장애인이든 부담 없이 가까운 교회에 찾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가 쉽지 않는 것 중 하나는 물리적 구조 변경의 문제이다(이계운, 1996). 건축 설계 시부터 장애인과 약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구조물에 의하여 장애인들은 관심 밖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다시금 장애인과 함께 하는 예배를 구상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또 다시 걸림돌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현 구조물의 변경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시간 혹은 변경의 불가능성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 있든 없든 점자 주보나 안내서를 만들어야 하고, 청각 장애인이 있든 없든 설교의 수화 통역이 있어야 하며, 지적 장애인이나 기타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그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사역의 프로그램 특징들을 살펴보면, 일회적인 방문이거나 이벤트 형식의 행사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가난하고 동정적으로 여기면서 시설을 방문한다. 또한 이것은 종종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 중심의 방문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인과의 긴밀한 관계보다는 일방적인 봉사로 마치고 끝난다. 복음과 영혼구원 보다 물질만을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교제 차원의 만남으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배당 안에서 혹은 교회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회 교인으로서의 관계가 유지되려 하기보다는 예배당 바깥에서 또는 교회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지하는 그리하여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형태의 것이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선 교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교 차원에서의 장애인과의 교제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고,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즉, 의식주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에겐 적극적이었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은 늘 열악해 있고 동시에 장애인의 신앙적인 삶은 관심 밖의 문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교회는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장애인의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려하면서 교인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면,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커다란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김영신, 2006: 53).

그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선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장애인 사역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실시되어야 하고, 이는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선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이 선교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사명 등을 고취시키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역 등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부분, 그리고 교회 차원의 접근 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19~20).”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로서는 한국 교회내의 장애인식과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장애수용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질적 연구는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이 교회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양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조사 도구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장애인식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경남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표집은 비확률적 표집으로 임의표집을 실시하였다. 고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에 다니는 학생과 교수, 강사들의 교회 교인과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80부 배포 중 회수된 설문지는 총 279부이었으며, 장애인 대상 설문과 면접은 26명이었다.

연구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그를 통한 연구 도구를 만드는 과정 즉,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 척도의 개발을 실시하였고, 최종 구성

된 설문지를 2011년 8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직접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식과 장애수용에 대한 내용을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와 교회 내 장애관련 특성에 대해서 빈도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식과 장애수용에 관한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 2. 연구 도구

2011년 5월부터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 척도를 개발하였다. 조사도구를 구성하는 데에는 교회건축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이용택, 2006),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 안산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이은숙, 2005),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이복규, 2005),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장애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일반 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최경주, 2009),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일반 고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윤상태, 2005), 장애학생 이해도 및 통합 학습 경험에 따른 일반 초등학생의 장애 수용도 분석 연구(하태환, 2003),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고일영, 2009)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 교인에 대한 분석

####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279명으로 남성이 122명(43.7%), 여성이 157명(56.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0대 39명(14.0%), 20대 119명(42.7%), 30대 25명(9.0%), 40대 60명(21.5%), 50대 27명(9.7%), 60대 이상 9명(3.2%)으로 2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았다. 교회 소재지는 부산 175곳(62.9%), 경남 78곳(28.1%), 경북 14곳(5.0%), 기타 11곳(4.0%)이었으며, 교회설립년도는 1950년 이전 28개(10.0%), 1951년에서 1970년까지 88

개(37.0%), 1971년에서 2000년까지 78개(32.8%), 2000년 이후 44개(18.5%)로 나타났다.

현재 출석 교인 수는 100명 미만 79곳(30.5%), 100~500명 50곳(19.3%), 500명~1,000명 76곳(29.3%), 1,000명~5,000명 45곳(17.4%), 5,000명 이상 9곳(3.5%)이었다. 소속된 교단은 고신, 합동, 통합의 장로교가 222개(81.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1〉 일반적 사항

문항	내용	빈도 (%)
성별	남자	122명(43.7%)
	여자	157명(56.3%)
연령	10~19세	39명(14.0%)
	20~29세	119명(42.7%)
	30~39세	25명(9.0%)
	40~49세	60명(21.5%)
	50~59세	27명(9.7%)
	60세 이상	9명(3.2%)
교회 설립년도	1950년 이전	28개(10.0%)
	1951~1970년	88개(37.0%)
	1971~1999년	78개(32.8%)
	2000년 이후	44개(18.5%)
교회 소재지	경남	78곳(28.1%)
	부산	175곳(62.9%)
	경북	14곳(5.0%)
	기타	11곳(4.0%)
소속된 교단	장로교(고신)	71개(25.9%)
	장로교(합동)	73개(26.6%)
	장로교(통합)	78개(28.5%)
	침례교	3개(1.1%)
	감리교	1개(0.4%)
	순복음	2개(0.7%)
	기타(성결, 백석)	46개(16.5%)
출석 교인 수	100명 미만	79곳(30.5%)
	100명~500명 미만	50곳(19.3%)
	500명~1,000명 미만	76곳(29.3%)
	1,000명~5,000명 미만	45곳(17.4%)
	5,000명 이상	9곳(3.5%)

\* 결측치는 제외됨

## (2) 장애관련 특성

교회 내 장애인의 수는 2명이하 29곳(13.6%), 3~10명이하 106곳(49.8%), 11~30명은 59곳(27.7%), 31~50명 4곳(1.9%), 51명 이상은 15곳(7.0%)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에서는 지체장애 171명, 지적장애 140명, 정신장애 77명, 뇌성마비 57명, 시각과 청각이 39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43명(15.5%), 조금 알고 있다 165명(59.6%), 잘 모르겠다 65명(23.5%), 전혀 모른다 4명(1.4%)으로 나타났고, 교회 내에 장애인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곳(20.2%), 없다 221곳(79.8%)이었다.

〈표2〉 장애관련 사항

문항	내용	빈도(%)
교회 내 장애인 교인 수	2명 이하	29곳(13.6%)
	3~10명	106곳(49.8%)
	11~30명	59곳(27.7%)
	31~50명	4곳(1.9%)
	51명 이상	15곳(7.0%)
장애인 교인의 장애유형 (중복응답)	지체장애인	171명(61.3%)
	정신장애인	77명(27.6%)
	지적장애인	140명(50.2%)
	시각장애인	39명(14.0%)
	청각장애인	39명(14.0%)
	뇌성마비 기타	57명(20.4%) 13명(4.7%)
장애유형과 특징에 대한 인식	잘 알고 있다	43명(15.5%)
	조금 알고 있다	165명(59.6%)
	잘모르겠다	65명(23.5%)
	전혀 모른다	4명(1.4%)
장애인 부서 유무	있다	56곳(20.2%)
	없다	221곳(79.8%)

## (3) 예배관련 특성

예배와 관련해서 장애인만을 위한 예배부서를 두는 것이 좋은가의 질문에서 그렇다 89명(31.9%), 그렇지 않다 168명(60.2%), 잘 모르겠다 22명(7.9%)이었고, 장애인만의 예배부서를 두는 것이 좋은 이유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41명(46.6%), 의사소통 되

지 않아서 7명(8.0%), 나와 달라서 7명(8.0%), 불편해서 1명(1.1%), 기타 32명(36.4%)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만의 예배부서에 대해 반대한 이유로는 나와 동등하기 때문에 146명(84.9%), 교회규모가 적어서 10명(5.8%), 담당인력이 없어서 8명(4.7%)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애인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의 질문에서 생각해 본적이 있다 185명(66.3%), 생각해 본적이 없다 94명(33.7%)이었고, 장애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문항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9명(97.1%), 아니오 2명(0.7%), 잘 모르겠다 6명(2.2%)이었다.

〈표3〉 예배관련 사항

문항	내용	빈도(%)
장애인을 위한 예배부서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	그렇다	89명(31.9%)
	그렇지 않다	168명(60.2%)
	잘 모르겠다	22명(7.9%)
장애인의 예배부서를 두는 것에 찬성한 경우 그 이유	예배에 집중	41명(46.6%)
	불편해서	1명(1.1%)
	의사소통 되지 않아서	7명(8.0%)
	나와 달라서	7명(8.0%)
	기타	32명(36.4%)
장애인의 예배부서를 두는 것에 반대할 경우 그 이유	교회규모 작아서	10명(5.8%)
	담당인력 없어서	8명(4.7%)
	장애인이 원하기 때문	2명(1.2%)
	나와 동등하기 때문	146명(84.9%)
	기타	6명(3.5%)
장애인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다	185명(66.3%)
	생각해 본적 없다	94명(33.7%)
장애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	269명(97.1%)
	아니오	2명(0.7%)
	모르겠다	6명(2.2%)
장애인의 교회 출석 이유	의존적 측면	20명(7.2%)
	교육적인 측면	17명(6.1%)
	믿음의 측면	200명(71.9%)
	교제의 측면	29명(10.4%)
	그냥 출석	5명(1.8%)
	모르겠다	7명(2.5%)

문항	내용	빈도(%)
장애인 교인을 위한 교회의 지원 내용 (중복응답)	수화통역사	24명(8.6%)
	경사로	65명(23.3%)
	엘리베이터	141명(50.5%)
	장애인 화장실	103명(36.9%)
	휠체어	43명(15.4%)
	자동출입문	27명(9.7%)
	기타	4명(1.4%)

장애인의 교회출석 이유로는 믿음의 측면 200명(71.9%), 교제의 측면 29명(10.4%), 의존적 측면 20명(7.2%), 교육적 측면 17명(6.1%), 모르겠다 7명(2.5%), 그냥 출석 5명(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장애수용에 대한 사항

교회 내 장애에 대한 수용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으로 출석교인이 응답한 내용이다. 장애에 대한 수용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alpha=0.861$ 로 나타났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는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1점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를 두었다. 문항구성에서는 역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려 하였고, 4점에 가까울수록 장애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4〉 장애 수용에 대한 사항

(빈도: 명)

항목	M	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장애인이 출석하는 것이 불쾌하다	3.72	.490	205	24	5	0
나는 장애인이 예배 참석을 하려한다면 도울 것이다	3.15	.778	17	15	155	92
장애인 성도를 만나게 될 때 나에게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3.47	.650	155	102	21	1

항 목	M	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장애인 성도에게 동정 아닌 온정을 느낀다	2.94	.643	41	190	39	9
장애인 성도들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교회공동체 생활은 어려우며 그들만의 교회공동체에서 종교 생활해야 한다	3.25	.760	115	128	27	9
장애인 성도와는 친해지기 어렵다	3.03	.688	67	156	53	3
만약 내가 장애인 되어도 계속 예배참석 할 것이다	3.43	.606	4	5	138	132
만일 내가 장애인이 되어도 교회공동체에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다	3.03	.637	5	38	181	55
장애인과 함께 교회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다면 두려울 것이다	3.24	.727	111	128	36	4
장애인 성도들이 교회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 한다	3.31	.708	122	125	28	4
장애인들은 교회봉사를 함에 있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9	.765	6	52	132	89
만일 예배당을 신축한다면, 건축물의 출입구와 통로사이에 계단이 있을 경우 경사로가 있어야 한다	2.99	.852	18	48	131	82
만일 예배당을 신축한다면, 교회 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3.46	.639	4	10	117	148
만일 예배당을 신축한다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유도표식을 할 필요가 있다	3.37	.637	2	18	135	124
만일 예배당을 신축한다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3.32	.727	6	25	121	127
만일 예배당을 신축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럭은 설치 할 필요가 없다	3.24	.864	131	100	3	15
만일 예배당을 신축한다면, 휠체어 사용자의 층간 이동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 할 필요가 없다	3.23	.768	11	24	133	111
만일 예배당을 신축한다면, 일반 화장실 내부에 난간이 부착된 장애인용 대변기와 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42	.652	4	13	123	139
만일 예배당을 신축한다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리프트가 있어야 한다	3.17	.763	7	40	130	102
만일 예배당을 신축한다면,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 할 필요가 있다	3.41	.661	4	15	123	137
문항 신뢰도	$\alpha=0.861$					

장애수용에 관한 문항 중 가장 높은 수용도를 보인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장애인이 출석하는 것이 불쾌하지 않다”(M=3.72, SD=0.490)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나는 장애인 성도에게 동정 아닌 온정을 느낀다”(M=2.94, SD=0.643)로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장애인식에 대한 사항**

교인들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이다. 총 18문항으로 출석교인이 응답한 내용이다. 각각의 문항은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1점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를 두었고, 4점에 가까울수록 장애인식이 긍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식에 관한 문항 중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인 것은 “장애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M=3.14, SD=0.632)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장애인의 말이나 발음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M=2.48, SD=0.701)로 나타났다. 문항의 신뢰도는  $\alpha=0.884$ 로 나타났다.

〈표5〉 장애인식에 관한 사항

(빈도: 명)

항 목	M	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장애인은 비장애인 보다 생각하는 능력이 모자란다	3.00	.707	66	148	61	3
장애는 그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다	3.13	.658	79	154	45	0
대부분의 장애인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적응하는 능력이 낮다	2.52	.711	26	103	140	9
장애인은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과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2.82	.648	37	156	84	1
장애인은 대인관계가 부족하여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2.69	.674	30	136	109	3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	2.78	.675	36	148	91	3

항 목	M	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장애인은 지적능력이 낮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한다	2.95	.679	53	159	63	3
장애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3.14	.632	74	170	30	3
장애인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없다	3.05	.640	63	164	50	0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주장을 표현 할 수 있다	3.10	.705	7	36	157	76
장애인은 깊이 생각하고 말 또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2.81	.700	9	72	158	37
장애인은 물건의 특징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2.99	.699	62	154	56	4
장애인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한다	2.91	.677	48	157	68	3
장애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2.91	.658	45	163	64	3
장애인은 실패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	2.87	.663	6	63	168	39
장애인의 말이나 발음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2.48	.701	25	91	152	8
대부분의 장애인은 나이보다 유치하게 행동 한다	2.84	.691	43	150	79	4
장애인은 장래에 대한 포부가 매우 낮다	2.91	.703	51	153	67	5
문항 신뢰도	$\alpha=0.884$					

**(6) 장애인 관련 교회활동 사항**

교회에서의 장애인과의 활동에 관한 질문에서 ‘장애인 교인과 친교활동을 한다’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이었고, ‘체육대회 때 장애인과 편이 되어도 좋다’의 문항에서도 93.1%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표6〉 장애인과의 교회 활동 사항

항 목	내용	빈도(%)
장애인 교인이 있다면 오락이나 친교 활동 등을 한다	예	209명(75.%)
	아니오	50명(18.1%)
	시간이 없다	18명(6.4%)
장애인 교인이 있다면, 체육대회 때 장애인과 같은 편이 되어도 좋다	예	257명(93.1%)
	아니오	19명(6.9%)
장애인 교인이 있다면, 교회예배 외에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항상 한다	80명(29.0%)
	가끔 한다	162명(58.7%)
	하지 않는다	34명(12.3%)
장애인 교인이 있다면, 교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석한다	매번 한다	95명(34.4%)
	가끔 한다	158명(57.2%)
	하지 않는다	23명(8.3%)
장애인 교인이 있다면, 교회에서 장애인 교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다	한다	242명(87.7%)
	안한다	13명(4.7%)
	피하는 경우가 있다	21명(7.6%)

‘장애인 교인과 교회 예배 외에 이야기를 나누는가’의 질문에서는 가끔한다 162명(58.7%), 항상 한다 80명(29.0%), 하지 않는다 34명(12.3%)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매번 참석한다 95명(34.4%), 가끔 한다 158명(57.2%), 하지 않는다 23명(8.3%)로 응답하였고, ‘장애인 교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가’의 질문에서 한다 242명(87.7%), 안한다 13명(4.7%), 피하는 경우가 있다 21명(7.6%)이었다.

## (7) 상관관계

교인의 연령, 교회 설립년수, 출석 교인 수, 장애수용(편의시설 포함), 장애인식의 관련성 검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연령	교회 설립년수	출석 교인수	장애수용	장애인식
연령	1				
교회 설립년수	.035 (.595)	1			
출석 교인수	-.118 (.058)	-.466** (.000)	1		
장애수용	.021 (.726)	-.137* (.035)	.115 (.065)	1	
장애인식	-.054 (.372)	-.159* (.014)	.113 (.070)	.366** (.000)	1

\*\* p<.001, \* p<.05

상관분석의 결과를 보면 교회 설립연수가 오래 되지 않은 경우 장애수용과 장애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 설립연수가 최근일수록 장애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r=-.137$ ,  $p=.035$ ), 장애에 대한 인식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159$ ,  $p=.014$ ). 또한 장애인식과 장애수용 간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66$ ,  $p=.000$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흐름을 교회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우리 교회들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으로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적 규제를 실시하여 구조물을 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장애인식 변화를 교회도 고려하여 규모와 예산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2. 장애인 교인에 대한 분석

### (1) 일반적 특성

장애인 교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26명의 장애인이 참여하였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 7명, 지적장애 6명, 뇌병변장애 4명, 청각장애 4명, 시각장애 3명, 각 뇌성마비, 자폐성장애 1명으로 나타났다. 장애급수로는 2급이 11명(42.3%), 1급 10명(38.5%), 3급 5명(19.2%)이었다.

예배와 관련해서 장애인만을 위한 예배부서를 두는 것이 좋은가의 질문에서 그렇다 12명(46.2%), 그렇지 않다 13명(50.0%), 잘 모르겠다 1명(3.8%)이었고, 장애인만의 예배부서를 두는 것이 좋은 이유로 비장애인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여서 12명(46.2%),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8명(30.8%), 편해서 3명(11.5%)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만의 예배부서 반대의 이유로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6명(46.2%),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서 2명(7.7%), 교회의 규모가 적어서 1명(3.8%)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애인의 교회출석 이유로는 믿음의 측면 20명(80.0%), 그냥 출석 3명(12.0%), 의존적 측면 2명(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 내에서의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13명(50.0%)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예배도움 6명(23.1%), 장애이해에 대한 교육 4명(12.0%)로 나타났다. 교회 내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로는 엘리베이터 53.8%, 다음으로 경사로(26.9%)를 꼽았고, 교회 내 시설 이용 시 불편한 것으로 계단이 10명(43.5%), 경사로의 급경사 6명(26.1%), 장애인 화장실 4명(15.4%) 등으로 나타났다.

〈표8〉 장애인 관련 사항

문항	내용	빈도(%)
장애유형	지체장애	7(26.9%)
	지적장애	6(23.1%)
	뇌병변장애	4(15.4%)
	뇌성마비장애	1(3.8%)
	시각장애	3(11.5%)
	청각장애	4(15.4%)
	자폐성발달장애	1(3.8%)

문항	내용	빈도(%)
장애등급	1급	10(38.5%)
	2급	11(42.3%)
	3급	5(19.2%)
교회 예배 참석 시 이용하는 교통편은 무엇입니까?	도보	5(19.2%)
	일반버스	4(15.4%)
	택시	2(7.7%)
	지하철	0(0.0%)
	본인이 운전하는 자가용	3(11.5%)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가용	2(7.7%)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량	4(23.1%)
	기타(두리발)	4(15.4%)
	교회 내 주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출입문
복도 및 통로		0(0.0%)
계단		10(43.5%)
장애인 화장실		4(15.4%)
장애인전용 승강기		1(3.8%)
경사로의 급경사		6(26.1%)
기타		1(4.3%)
교회에 출석하시는 이유	의존의 측면	2명(8.0%)
	교육적인 측면	0명(0.0%)
	믿음의 측면	20명(80.0%)
	그냥 출석한다	3명(12.0%)
	교제의 측면(사람을 사귀기 위하여)	0명(0.0%)
장애인만의 예배부서를 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	12(46.2%)
	그렇지 않다	13(50.0%)
	잘 모르겠다	1(3.8%)
장애인 예배부서를 두는 것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8(30.8%)
	편해서	3(11.5%)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0(0.0%)
	비장애인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12(46.2%)
	장애인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0(0.0%)
	기타	0(0.0%)

문항	내용	빈도(%)
장애인 예배부서를 두는 것에 대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교회의 규모가 적어서	1(3.8%)
	담당인력이 없어서	0(0.0%)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서	2(7.7%)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6(46.2%)
	기타	4(30.8%)
교회 내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편의시설)은 무엇인가 (중복응답)	수화통역사	6명(23.1%)
	경사로	7명(26.9%)
	엘리베이터	14명(53.8%)
	장애인 화장실	6명(23.1%)
	휠체어	3명(11.5%)
	자동출입문	6명(19.2%)
	기타	0(0.0%)
교회 프로그램 중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예배도움	6명(23.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13명(50.0%)
	경제적 도움	1명(4.0%)
	제가 도우미	2명(8.0%)
	교육(장애 이해)	4명(12.0%)
	기타	0(0.0%)

## (2) 장애인 면담 질적조사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교회와 교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 지적한 내용으로는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이다”라고 하였고, 또 다른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은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불편한 시설이나 필요이상의 친절이 아니라 비장애인처럼 똑 같고,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별하지 말아 주세요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편하지 않은 시선이 부담스럽다.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는 게 좋아요 특별히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말한 지체 3급 장애인과 “일반인처럼 같이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는 지체 3급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간의 관계형

성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한 지체 1급 장애인, “장애인들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 무조건 불쌍한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나도 직업(시인)이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보다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말한 지체 3급 장애인도 있었다.

또 다른 장애인 중 자폐성 2급 장애인은 “같이 지내고 싶고, 같이 활동하고 놀고 싶다”고 말하였고, 시각장애 1급인 장애인은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청각장애 2급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또 다른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은 “수화통역사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능력보다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은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 된 지체로 생각하고,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또 다른 뇌병변 2급 장애인은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신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자폐성 장애인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장애인 교인들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하여 줄 것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성경적 장애인관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장애인 사역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을 다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V. 결론 및 논의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의 교회내의 장애인 관련 실태와 장애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교회에서의 장애인 사역의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제안할 수 있기에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79개의 부산·경남·경북 지역중심의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로 279개 교회 중 56곳이었고, 장애인 교인 수는 3~10명이 106곳(49.8%), 11~30명이 59곳(27.7%)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교인은 66.3%이었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교인이 33.7%이었다. 장애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은 269명(97.1%)이었고, 아니오 2명(0.7%), 모르겠다 6명(2.2%)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교회 출석 이유로 믿음의 측면 71.9%, 교제의 측면 10.4%, 의존의 측면 7.2%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 내에 장애인 교인을 위한 지원 내용으로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를 들 수 있었다.

장애인 교인의 경우 26명의 장애인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7명, 지적장애 6명, 정신장애 4명 등이 참여하였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로는 믿음의 측면이 20명으로 80%로 응답하였다. 장애인만을 위한 부서를 들 것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비장애인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12명(46.2%),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8명(30.8%), 편해서 3명(11.5%)로 응답하였다. 한편 장애인부서를 따로 두는 것에 반대하는 응답으로 분리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46.2%, 차별받은 느낌이 들어서 7.7%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데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내 필요한 편의시설로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수화통역사, 자동출입문의 순이었다. 교회 내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13명(50.0%)이 응답하였고, 예배도움을 6명(23.1%), 장애인해 4명(12.0%)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비장애 교인의 장애교인에 대한 인식이 수치상으로는 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장애인과의 면담 내용을 보면 비장애인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동등한 인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실질적으로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 문제로 외면을 받고 소외되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는 교회에서조차 많은 장애인들이 경험하곤 한다. 이들은 다른 교인과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교회는 이 땅에서 소외된 자, 약한 자, 작은 자들과 함께 해야 하며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복음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교회에서 몇 가지 배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위해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어떠한 장애인이 교회에 오더라도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주보가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지원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로 통역할 수 있는 봉사자가 필요하며, 정신적 장애인이나 기타 여러 다양한

장애인들도 그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 교회 내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 외에 환경적으로 신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의 배려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장애인을 접하면서 각 개인의 존엄성과 개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내외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하나님의 몸 된 교회 내에서 서로가 차별 없이 대하며 함께 해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자세를 검토하며,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는 장애인의 접근이 쉽도록 인식과 수용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복음 앞에 평등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돕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교인과의 면담 결과에서는 장애교인들은 자신을 차별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아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장애인은 교회 내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결국 상호간의 이해와 하나됨의 부족의 결과라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장애라는 것을 뛰어 넘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소통은 없는 듯하다. 여기에서 장애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양쪽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인식과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 교인인 우리 스스로가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사역은 철저한 성경의 토대위에 장애인을 해석하는 성경적 접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한국교회가 조금씩 장애사역에 눈을 떠가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사역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지 않고, 동정적 차원에서 구제사역의 일환으로, 또는 시혜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적 사역의 일환으로 장애사역이 진행되어 왔고, 장애인을 선교대상으로 보는 선교차원에서의 장애사역 모델 역시 어디까지나 장애인을 선교의 객체로 볼 뿐이다. 이러한 사고아래에서는 장애인들이 언제나 주류사회의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불쌍하고 동

정의 대상으로 보기에 구원에서도 제외시키는 결과로 직결될 위험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선교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희석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의미를 완전하게 압도해 버린다. 선교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오스왈드 챔벌스, 2009). 이와 같이 장애인의 사역도 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동정과 봉사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재활 철학을 바탕으로 완성시켜 갈 수 있다. 재활의 이념은 생명존중, 평등의식, 차별금지, 인권회복으로서 장애인이 세상에서 인격적 존재로서 대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재활은 인류애의 실천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장애인을 시혜대상이나 의존적인 존재로 머물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과 동인을 제공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게끔 한다.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재활 관점에서 장애인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다. 인간은 지적 능력, 신체 능력, 감각 능력 등의 면에 있어서 서로 닮았다기보다는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상호작용과 매우 복잡한 기전을 형성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장애상태(disablement)에 대한 반응의 강도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자극들로는 생물학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자극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Vash, 1981). 그러나 아무리 심한 장애를 지닌 사람이라도 대부분 어느 정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사회보장서비스보다는 심신에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적절한 정신적, 신체적 기능회복의 방법을 찾도록 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들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 된다. 재활은 의료적 재활, 심리·사회적 재활, 직업적 재활, 교육적 재활 등 그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며, 접근방법은 상담, 공학 치료, 구조설계 등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지지와 통합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생명으로 이끄는 방법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곧 그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이며, 장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활의 기독교적 소명이기도 하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야고보서 2:1).”

본 연구는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애교인의 참여가 부족하고, 비장애교인의 질적조사(면담) 부재 등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권선진 (2007). 『장애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고일영 (2009).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문수 (2009).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교회 장애인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인권 복지연구』. 7. 39~61.
- 김영신 (2006). “한국 교회의 장애인 선교현황과 선교 연구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 김홍덕 (2010). 『장애신학』. 서울: 대장간.
- 남동우 (1944).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책임.” 『월간고신』. 4월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 윤상태 (2005).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일반 고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계윤 (1996). “21세기 장애인 목회, 이렇게 제안한다.” 『두란노』. 85.
- 이복규 (2004).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지체 및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용택 (2006). “교회건축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은숙 (2005).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 안산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 이희철 (2009). “장애인 선교의 단계별 사역방안.” 『월간고신』. 4월호.
- 오스왈드챔벌스 (2009).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테반 황 역. 서울: 도서출판 토기장이.
- 정부자 (2003).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최경주 (2009). “장애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일반 아동들의 장애 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하태환 (2003). “장애학생 이해도 및 통합 학습 경험에 따른 일반 초등학생의 장애 수용도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남희 (2001). “장애인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 Vash, C. L. (1981), *The psychology of disabilit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http://www.kinds.or.kr/>(한국언론진흥재단)  
교회여, 지적장애인에게 세례 베풀라. 김홍덕 목사 “장애를 새로운 해석의 틀로 바라봐야”  
[2011-04-28 07:32] <http://chi.christianitydaily.com/view.htm?id=184847&code=mw>

## ABSTRACT

### A Study on the Disability Awareness and Acceptance of disability(include disabled accommodation status) in the Korean Church

Hye Jeon Park(Assistant Professor, Dept.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Kosin University)

Jeong Im Kim(Adjunct Professor, Dept.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Kosin University)

Young Kil Cho(Assistant Professor, Dept.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Kosin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do reveal the degree of disability awareness and accommodation in the Korean Church. This study Busan and Gyeongnam local church to target research on disability awareness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was carried out. Quantitative study subjects were a total of 279 people, the disabled target surveys and interviews 26 people were involved in qualitative research. As a result of impaired expression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in the church appears to be correlated with established training and awareness able-bodied members of the disabled appears to be quite positive, whereas, non-disabled with disabilities have shown differences in expression of the Disabled. Installed an elevator in the church facilities and disabled toilet ratio was higher, the necessary support to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Church (facilities) are held and include elevators and ramps. Based on the results for future disability in the Church's mission and direction for ministry will be able to off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s future ministry in the church about disability issues and direction prior to the more essential and impor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to deal with biblical values that are talking.

Key Words: disability awareness, acceptance disability, disabled accommodation status, person with a disabilities, church